

112121 주일설교 “감사로 사는 삶” 요한삼서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주수감사주일입니다. 주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헤아려보며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일들도 많으셨지요? 외로움과 쓸쓸한 시간도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고생과 땀흘린 피로도 있으셨겠고, 혼자서라도 굳세게 살려고 발버둥쳤던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잘해보려고 했으나 실패도했고, 해서 남몰래 흘린 여러분의 눈물과 상처도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자녀를 돌보는 일에 감사하면서도 때때로 지쳐버린 여러분의 한숨과 목마름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은 ‘목마름’ 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 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메마름으로 응답하지는 않았는지 살피시고,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에 살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1620년의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01년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게다가 남아 있는 사람들마저 해마다 찾아오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놓이게 되자 그들은 다시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농부 한 사람이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고 싶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못하고 여건도 유럽보다 편안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 대신 감사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농부의 말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식 주간 대신, 감사 주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주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 없는 기독교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에 관한 것이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약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은 동사 [야다, yadah]와 명사 [토타, todah]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것은 “마음의 샘줄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유카리스티아, eucharistia] 와, [카리스, charis]라는 단어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는데, 이 말은 “생각한다” 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감사란 무엇이나면... 바로 깊이 생각(Think)하는 것이 감사(Thank)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감사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반면,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고 부르고, 바울은 믿음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젊어서 성미가 급했던 청년 요한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온유한 성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의 야망도 줄어들었고, 편협한 외골수 성격도 사라졌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

을 받아 격한 성격의 청년에서 사랑의 사도로까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일은 이와같이 놀랍습니다. 해서 오늘 말씀도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잘되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잘되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큰집에서 매일 비싼 음식 먹고, 비싼 옷입고, 남들 앞에 땡땡거리며 남들이 마냥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잘되는 삶입니까? 우리는 항상 육신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원하기 쉽습니다. 생활의 고민, 가정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제서야 영혼의 문제도 생각할 수 있겠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요한삼서에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의 잘됨이 먼저고 그 다음이 범사에 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와 더불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저는 고등학교 1학년때 목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푼 꿈을 안고 한국에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갈 때 이런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에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일을 위해 모여 있으니 얼마나 거룩할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1학년 2학기때는 학내 사태로 인해, 전학년 1천명의 학생이 수업 일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한학기 유급을 당했습니다. 제가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에 갔는데, 대모하느라고 그 때까지 거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정치하는 일부 목회자들과 신학교 교수님들과 교직원들 신학생들과 성도들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점점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는가운데, 제 삶에 감사는 사라져 버리고 제 신앙에도 문제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학내사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때문에 선배 동기 후배들 가운데 이 길을 많이들 포기했고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신학생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신학교교수가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을까?’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 길을 포기하려고 맘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어찌 이룰실 수가 있느냐고 막 따져 보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배워도 부족할 텐데 이게 뭐냐고 말이죠. 나사에 들어가고 싶은 제 꿈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고 말이죠. 그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 없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신학교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기도 아닌 기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JSA 판문점에서 군복무를 했었는데, 군대에서 내가 이려다가 정말 죽을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여러번 있었거든요. 판문점은 북한군과 가장 가깝게 마주하는 부대입니다. 수류탄, 대남방송, 전투체육, 미친듯이 소리지르고 ... 제 동기 한명은 어리버리하다고 태권도 4단 신병교관의 뒤돌려차기에 맞아서 기절하고, 신병으로 자대에 들어가보니, 한기위 고참은 키 183에 90kg인데 팔굽혀펴기 못한다고 고참이 발로 밟아서 팔이 부러져서 깎스하고 있고... 지금은 군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일들이 많았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성경말씀을 하루에도 수십번씩 암송하구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룰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불평은 어느덧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아서 몸 상하지 않고, one piece로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신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더 극한 상황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 삶이 그간 문제만 보아왔고 온통 불평과 불만뿐이었음 또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감사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세상만 보고 다른 사람들만 보느라 정작 제 영혼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렸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Lord -Dan Burgess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이후로는 제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서 저의 변변치 못한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랬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너는 그러지 않으면 되잖니. 비겁하게 피하려고만 들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앞에 계신데도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보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세상을 보며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지친 영혼을 소생케하여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 주셨습니다. 판문점 부대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저에게 참 유익했습니다. 여러가지 도전도 많았지만, 저의 변변찮은 기도를 들어주셔서 몸 어디도 상하지 않고 one piece로 제대하게끔 도우셨습니다. 그 경험은 제대 후에도 뭔가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것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학부만 마치고 예일대학교 M.Div. 석사 과정으로 바로 입학했던 케이스가 전에도 없었고 제 이후에도 사실 없었거든요. 감사하는 삶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사야 55:8-9,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요한삼서에서 말하는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잘 되고” 로 번역된 헬라어 [유오두 스 다이]는 [유, yoo]” 잘, well” 와 [호도스, hodos]” 길” 가 합성된 [유오도오]” 여행을 잘 하게 하다” , “번영하다” , “방향과 쉬운 길을 인도하다” 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잘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좋은 길로 인도됨” , “좋은 여행을 함” 이란 의미를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잘 된다” 는 성경적인 의미는 선한 목자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마치 시편23편의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도, 범사에 잘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 또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범사가 잘되는 것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됨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 하기 위해, 여러분 삶에 혹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메말라 버리진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주수감사주일을 맞은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됨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